

헤겔의 의식 고차 이론: 감각 확신과 현상 의식

김 성 환*

주제분류 서양근대철학, 심리철학

주요어 헤겔, 의식, 감각 확신, 현상 의식, 의식 고차 이론, 무의식

요약문

나는 헤겔의 의식 이론을 분석하기 위해 현대 심리 철학에서 의식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끌어들이며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서 감각 확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첫째, 감각 확신은 적어도 세 단계 이상으로 나눌 수 있고 감각 확신의 단계 1은 현대 심리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 의식과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감각 확신의 단계 2를 분석하면 헤겔의 의식 이론은 현대 심리 철학에서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의 한 종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풍부한 구체 내용은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의 사유 대상인 일차 비의식 경험이라 볼 수 있고 감각 확신의 단계 0이라 부를 수 있다. 내가 현대 심리 철학을 끌어들이며 헤겔의 의식 이론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접근법을 통해 헤겔의 난해한 철학, 특히 감각 확신의 복잡한 구조를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나는 현대 심리 철학에서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의 한 뿌리가 헤겔의 의식 이론 속에도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식 고차 이론의 철학사 전통을 일부나마 밝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진대학교

1. 머리말

“인간은 사유(Denken)에 의해 동물과 구별된다.”¹⁾ 헤겔은 『엔치클로페디(Enzyklop 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1830) 1권에서 “오랜 선입견이고 시시해진 명제”²⁾라고 말하면서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한 전통 견해를 받아들인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고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사유할 수 없다. 왜 동물은 사유할 수 없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헤겔의 “사유” 개념을 분석해야 하지만 이 개념은 그의 철학 체계 전체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 가까이 있는 다음 문장을 보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와 관련해 사유에 기초한 인간의 의식 내용(menschliche Gehalt des Bewußtseins)은 처음에는 사상(Gedanken)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느낌(Gefühl), 직관(Anschauung), 표상(Vorstellung), 즉 형식으로서 사유와 구별해야 할 형식들로 나타난다.”³⁾

헤겔은 사유의 형식을 느낌, 직관, 표상의 형식들과 구별하고 좁은 뜻에서 사유를 “사상”이라 부른다. 느낌, 직관, 표상 등은 따로 개념 규정이 필요하지만 “사유에 기초”하니까 넓은 뜻에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넓은 뜻에서 사유의 스펙트럼은 느낌, 직관, 표상, 사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헤겔에 따르면 느낌, 직관, 표상, 사상은 사유의 형식들이고 그 내용은 모두 의식이다.

예를 들어 내가 치과에서 마취하지 않은 채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프다면 사유의 형식은 어떤 느낌이고 사유의 내용은 그 형식을 채우는 아

1) Hegel, G. (1970b), 42쪽.

2) Hegel, G. (1970b), 42쪽.

3) Hegel, G. (1970b), 42쪽.

프다는 의식이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눈앞에 번개가 번쩍이는 직관이 나 불꽃 연기가 피어오르는 표상이나 ‘다시는 생니를 드릴로 갈지 않을 거야’라는 사상이 떠오르면 사유의 형식은 어떤 직관, 표상, 사상이고 그 내용은 번쩍이는 번개의 의식, 피어오르는 불꽃 연기의 의식, 생니를 가는 데 대한 후회의 의식이다. 사유는 느낌, 직관, 표상, 사상 등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지만 이 모든 형식을 채우는 내용은 다양한 의식이다.

사유가 인간의 전유물이라면 사유의 형식을 채우는 내용인 의식도 인간 말고 다른 동물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헤겔에 따르면 사유에 기초한 의식 내용은 “인간의” 것이다. 이케하이모(H. Ikäheimo)에 따르면 “헤겔의 ‘공식 견해’는 인간만이 의식을 지닌다”⁴⁾는 것이다. 그렇다면 헤겔의 의식 개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현대 심리 철학에서 의식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끌어들여 헤겔의 『정신 현상학(*Ph nomenologie des Geistes*)』(1807)에서 감각 확신(*sinnliche Gewißheit*)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첫째, 감각 확신은 적어도 세 단계 이상으로 나눌 수 있고 감각 확신의 단계 1은 현대 심리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 의식(*phenomenal consciousness*)과 같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감각 확신의 단계 2를 분석하면 헤겔의 의식 이론은 현대 심리 철학에서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의 한 종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풍부한 구체 내용은 고차 사유(*higher-order thought*)로서 현상 의식의 사유 대상인 일차 비의식(*first-order nonconscious*) 경험이라 볼 수 있고 감각 확신의 단계 0이라 부를 수 있다. 내가 현대 심리 철학을 끌어들여 헤겔의 의식 이론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접근법을 통해 헤겔의 난해한 철학, 특히 감각 확신의 복잡한 구조를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

4) Ikäheimo, H. (Forthcoming), 1쪽.

이다. 거꾸로 나는 현대 심리 철학에서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의 한 뿌리가 헤겔의 의식 이론 속에도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식 고차 이론의 철학사 전통을 일부나마 밝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감각 확신의 단계 1과 현상 의식

현대 심리 철학자 찰머스(D. Chalmers)는 의식에 관한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나눈다.⁵⁾ 의식의 쉬운 문제들은 외부 자극을 분별하는 능력,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 심리 상태를 보고하는 능력, 행동을 사려 깊게 조절하는 능력,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모두 의식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해명하는 것이므로 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메커니즘, 특히 신경 메커니즘을 과학으로 밝히면 언젠가 풀린다. 그러나 찰머스에 따르면 의식의 쉬운 문제들이 풀려도 어려운 문제들이 남는다. 의식의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가 색 감각이나 냄새 감각의 질을 가지느냐는 것이다. 색 감각이나 냄새 감각의 질은 주관적이어서 같은 사람이더라도 내가 남의 색 감각이나 냄새 감각의 질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물며 나는 개가 되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개가 맞으면 어떤 느낌인지도 알 수 없다. 과학 철학자 네이글(T. Nagel)은 이 불가능성을 박쥐가 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what it is like to be a bat)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표현한다.⁶⁾ 박쥐가 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와 색, 냄새 같은 감각의 질은 경험의 주관 느낌이다. 찰머스의 견해는 과학이 경험의 주관 느낌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네이글의 견해는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5) Chalmers, D. (1995), 200~204쪽.

6) Nagel, P. (1974), 450쪽.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심리 철학자는 경험의 주관 느낌을 해명하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

색, 냄새 같은 감각의 질이나 박쥐가 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는 현대 심리 철학에서 현상 의식이라고도 불린다. 박쥐가 되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는 박쥐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의식이기 때문이다.⁷⁾ 심리 철학자 블록(N. Block)은 현상 의식을 접근 의식(access consciousness)과 구별한다.⁸⁾ 현상 의식은 경험의 주관 느낌 또는 독특한 질, 블록의 표현으로는 날(raw) 경험이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번개가 번쩍이고 불꽃 연기가 피어오르고 후회 막심한 느낌은 모두 현상 의식을 묘사한다. 그리고 접근 의식은 기억, 보고, 행동 조절 등에 쓰일 수 있는 심리 상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할 때 과거에 대한 정보는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심리 상태를 보고할 때 그 상태에 대한 정보도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떤 행동을 조절할 때 그 행동을 낳는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도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느낀 아픔의 심리 상태는 나중에 치과에 다시 가면 반드시 마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나의 행동을 조절할 때 쓰이는 정보이고 이 정보는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의식, 곧 접근 의식을 해명하는 것은 의식의 쉬운 문제에 속하고 날 경험, 감각의 독특한 질, 곧 현상 의식을 해명하는 것은 의식의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헤겔이 『정신 현상학』에서 의식의 첫 형태로 꼽는 것은 감각 확신이다. 나는 헤겔의 감각 확신이 한 단계의 뜻만 가지지 않고 적어도 세 단

7) 칸트(I. Kant)에 따르면 현상(Phänomenon)은 감성과 오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리고 후설(E. Husserl)의 현상학(Phenomenologie)에서 현상은 의식 작용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구조다. 이런 관점에서 현상 의식은 의식 작용에서 나타나고 감성과 오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8) Block, N. (1998), 380~385쪽. 윤보석은 현상 의식과 접근 의식의 구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접근 의식을 “인지적 의식”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다. 윤보석 (2007), 40쪽.

계 이상을 거치며 반전하는 뜻을 가진다고 본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 우리는 이 확신에 대해 “그것은 있다(es ist)”⁹⁾ 또는 “이것(Diese)이 있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단계 2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과 “여기”로 보고 감각 확신을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 “이것은 아프다”, “이것은 빨강다”, “이것은 짜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4절에서 설명하겠지만 아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감각 확신의 단계 0도 있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보자. 감각 확신은 앎(Wissen)의 일종이고 직접적 앎이다. 앎이 직접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앎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aufnehmend) 그 앎에서 아무 것도 변경하지 않으며 해석(Begreifen)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해석은 개념(Begriff)에 의한 이해를 의미하기가 개념을 담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언어로 이해하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한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픔을 번개가 번쩍이는 아픔이라고 언어로 표현하면 불꽃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픔이나 후회 막심한 아픔은 배제된다. 설사 세 가지 의미의 아픔을 모두 언어로 표현해 번개가 번쩍이고 불꽃 연기가 피어오르고 후회 막심한 아픔이라고 말하더라도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픔이 남김없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픔은 사람마다 다르고 복잡하고 미묘하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각 이것(sinnliche Diese)은 … 언어로 접근할 수 없다.”¹⁰⁾

9) Hegel, G. (1970a), 82쪽.

10) Hegel, G. (1970a), 91~92쪽. 이 논문의 심사자들께서 감각 확신의 단계 1이 언어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념(Meinen)”의 단계에 머문다는 뜻이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각 확신의 단계 2와 구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해주셨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은 3절에서 설명하듯이 “머릿속으로 표상하는 것”이라는 “사념”의 측면과 “그것” 또는 “이것”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을 지닌

“감각 이것”은 감각 확신과 같은 말이다. 감각 확신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직접적인 것이라는 뜻에서 헤겔은 “이것”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이품을 번개가 번쩍이는 아픔, 불꽃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픔, 후회 막심한 아픔 등의 언어로 표현하는 대신 때때로 “그런 게 있어”라고 말한다. “그런 게 있어”는 어떤 느낌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다. “그런 것”은 헤겔의 말로 바꾸면 “이것” 또는 “그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감각 확신은 앎이지만 아는 것에 대해 “그것은 있다”는 것밖에 말하지 못한다. 감각 확신은 의식에 속하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경험처럼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감각 확신은 있기는 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그런 게 있어”이고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 “그런 게 있어”는 모두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감각 확신의 특성을 나타낸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특성은 헤겔의 감각 확신을 현대 심리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 의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 절들에서 밝히겠지만 헤겔이 “언어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감각 확신은 “그것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지만 매우 풍부하게 보이는 구체 내용(konkrete Inhalt)에 대한 경험, 내가 감각 확신의 단계 0이라 부르는 비의식 경험이고 감각 확신은 이 비의식 경험을 개념에 기초해 다시 사유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이다.

생니를 드릴로 가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는 “그런 게 있어”,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는 감각 확신이다. “그런 게 있어”,

다. 내가 이 글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은 둘째 측면이다. 그리고 한 심사자께서 감각 확신은 기본적으로 의식에 속하기 때문에 감각 확신의 단계 0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반론을 제기하셨다. 나는 헤겔이 『정신 현상학』에서 의식 이전의 비의식 경험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의식 경험을 감각 확신의 단계 0이라고 부르고 헤겔이 비의식 경험의 단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도 엄밀히 말하면 언어 표현이지만 생니를 드릴로 갈 때도, 박쥐가 될 때도, 석양을 바라볼 때도, 멋진 음악을 들을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헤겔은 감각 확신이 비록 구체 내용 때문에 “매우 풍부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빈곤하다(ärmste)”¹¹⁾고 주장한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픔은 번개, 불꽃 연기, 후회 등으로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만큼 복잡 미묘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지만 “그런 게 있어”,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으므로 빈곤한 앞이다.

헤겔은 감각 확신이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는 빈곤한 앞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있다”는 말은 감각 확신의 단계 1에 대한 최소한의 언어 표현이다. 그러나 “있다”는 표현은 감각 확신에 대한 그야말로 빈곤한 앞이어서 만일 감각 확신이 현상 의식이라면 “있다”는 표현만으로 현상 의식을 언어로 충분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헤겔의 감각 확신이 언어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을까? 감각 확신의 단계 2에서는 반전이 일어난다. 헤겔은 “있다”를 넘어 “밤이다”, “집이다”, “아프다”, “빨강다”, “짜다” 등의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로 감각 확신을 표현한다.

3. 감각 확신의 단계 2와 고차 사유

감각 확신의 단계 2는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이것”은 감각 확신의 단계 1인 “이것이 있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대답은 우리가 이것, 곧 감각 확신을 “지금(Jetzt)”과 “여기(Hier)”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지금과 여기가 감각 확신을 가장 이해할

11) Hegel, G. (1970a), 82쪽.

12) Hegel, G. (1970a), 84~85쪽.

만하게(verständlich) 만들어주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은 “지금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은 밤이다”라고 대답하면 “지금은 밤이다”도 지금인 이것에 대한 한 가지 규정이니까 감각 확신에 속한다. 단계 1에서 우리는 감각 확신에 대해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지만 단계 2에서는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와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의 차이는 무엇일까?

헤겔은 다양한 술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 곧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감각 확신의 단계 1처럼 직접적 앎이 아니라 일반적 앎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밤이다”에서 지금은 밤이 낮으로 바뀌어도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으며 밤이 아닐 수도 있고 낮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모든 순간에 긍정으로든 부정으로든 적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일반적 앎이다. “여기”도 같은 논리에 의해 일반적 앎이다. “여기는 집이다”에서 여기는 길로 바뀌어도 여기이므로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일반적 앎이다. 따라서 지금과 여기로 풀이되는 이것, 곧 감각 확신도 일반적 앎 또는 일반적 앎에 대한 앎이다. “그러므로 일반적 앎이 실제로는 감각 확신의 진리다.”¹³⁾

감각 확신이 일반적 앎이라는 것은 반전의 의미를 지닌다. 헤겔은 감각 확신이 직접적 앎이라면 “언어로 접근할 수 없”지만 일반적 앎이라면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일반적 이것 또는 존재 일반을 자유롭게 표상하지(vorstellen) 않지만 일반적 앎을 말한다(aussprechen).”¹⁴⁾

헤겔은 표상하기와 말하기를 대조한다. 직접적 앎으로서 감각 확신은

13) Hegel, G. (1970a), 85쪽.

14) Hegel, G. (1970a), 85쪽.

머릿속으로 표상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앎으로서 감각 확신은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이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픔은 직접적 앎의 단계에서는 그 풍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 앎의 단계에서는 “이것은 아프다”, “이것은 번개가 번쩍인다”, “이것은 불꽃 연기가 피어오른다”¹⁵⁾ 등과 같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감각 확신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헤겔의 주장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나는 이 주장이 의식에 대한 헤겔의 견해가 현대 심리 철학에서 고차 이론의 한 종류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현대 심리 철학에서 현상 의식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으로 나뉜다. 의식에 대한 일차 이론은 현상 의식이 경험과 함께 생긴다고 보지만 고차 이론은 현상 의식이 개념에 기초해 경험을 다시 생각해야 생긴다고 본다.¹⁶⁾ 일차 이론에 따르면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프다는 현상 의식이 생기는 데는 이를 마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신경 세포가 손상되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생니를 드릴로 가

15) “이것은 아프다”는 “아프다”라는 한 가지 속성만을 포함하지만 “이것은 번개가 번쩍인다”와 “이것은 불꽃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번개”, “불꽃”, “연기” 등이 모두 속성들의 집합이므로 헤겔의 용어법에 따르면 한 가지 속성으로 표현되는 감각 확신이 아니라 의식의 다음 형태인 지각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번개”는 “번쩍이다”, “하늘에서 생긴다”, “환하다” 등 속성들의 집합이다. 그러나 헤겔이 감각 확신의 예로 드는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 등도 “어둡다”, “차다” 등의 집합인 “밤”, “아늑하다”, “잔다” 등의 집합인 “집”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번개가 번쩍인다”와 “이것은 불꽃 연기가 피어오른다”도 감각 확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6) 의식에 대한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은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은 현상 의식이 생길 때 작용하는 고차 경험을 내성(introspection)과 같은 고차 지각(perception)으로 보는 견해(Armstrong, D. (1981), Lycan, W. (1996))와 개념에 기초한 고차 사유(thought)로 보는 견해(Rosenthal, D. (1986), Carruthers, P. (2000))로 나뉜다. 이 글에서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은 커투터스의 고차 사유 이론으로 설명한다.

는 경험이 곧바로 아프다는 현상 의식을 동반한다. 그러나 고차 이론에 따르면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픔을 느끼려면 적어도 아픔을 즐거움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아프다는 현상 의식은 생니를 드릴로 가는 경험을 아픔과 즐거움의 구별에 기초해 이차 또는 이차 이상이라는 뜻에서 고차로 생각해야 생긴다.

의식에 대한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의 중요한 쟁점은 현상 의식이 개념에 의존하느냐는 것이다. 일차 이론의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타이(F. Tye)는 현상 의식이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고차 이론의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커루터스(P. Carruthers)는 현상 의식이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타이에 따르면 생니를 드릴로 갈 때 느끼는 아픔의 경험에 아픔, 즐거움 같은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을 모르더라도 생니를 드릴로 갈면 누구나 극심한 아픔을 느낀다. “어떻게 [경험이나 느낌]이 [의식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어떤 것, 예를 들어 자주색을 경험하면 나는 자주색을 의식해야 한다. 비슷하게 만일 내가 어떤 것, 예를 들어 가려움을 느끼면 나는 가려움을 의식해야 한다.”¹⁷⁾ 타이에 따르면 현상 의식은 경험에 대한 이차 또는 고차의 사유가 없더라도 경험과 함께 생기기 때문에 일차다.

그러나 커루터스에 따르면 현상 의식은 일차가 아니라 고차다. 일차 경험이 현상 의식이 되려면 일차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픔을 느끼기 위해 이를 마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나 신경 세포가 손상되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마취, 신경 세포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앎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픔의 현상 의식이 생기려면 적어도 아픔을 즐거움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아픔이 뭔지 모르면 생니를 드릴로 갈 아도 뽀뽀하는 즐거움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무슨 경험을 하는지 의

17) Tye, M. (1997), 290쪽.

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픔을 즐거움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아픔과 즐거움이 된지, 즉 아픔과 즐거움의 개념을 조금이나마 알아야 한다.

모든 구별은 개념에 대한 앎을 전제한다. 파랑을 의식하려면 파랑을 다른 색과 구별해야 하고 파랑을 다른 색과 구별하려면 파랑의 개념 또는 색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개념을 안다는 것은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프다” 또는 “이것은 파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픔을 즐거움과 구별하고 파랑을 다른 색과 구별하기 때문에 아픔이나 파랑의 개념을 알고 있다. 말하기, 언어 사용은 개념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커루터스에 따르면 현상 의식은 개념에 의존해 일차 경험을 다시 생각할 때 생기기 때문에 고차다.¹⁸⁾ 의식에 대한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여기서 자세히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4절에서 이 글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간략하게 나의 의견을 밝힌다. 헤겔의 감각 확신으로 돌아가 보자.

헤겔이 『정신 현상학』에서 감각 확신의 단계 2를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의 의식 이론이 고차 이론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감각 확신의 단계 2는 “이것”을 “지금”과 “여기”로 풀이해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 등 언어로 표현된다. 『정신 현상학』에서 의식의 첫 형태인 감각 확신 다음에 나오는 둘째 형태는 지각(Wahrnehmung)이고 지각은 속성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소금은 희고 짜고 입방형이다”가 헤겔이 제시하는 지각의 예인데 소금은 “희다”, “짜다”, “입방형이다”라는 속성들의 집합이다.¹⁹⁾ 반면 헤겔이 제시하는 감각 확신의 예는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 말고도 “이것은 희다”, “이것은 짜다”, “이것은 입방형이다” 등이다. “이것은 희다”, “이것은 짜다”, “이것은 입방형이다”는 모두

18) Carruthers, P. (2000), 129~133쪽.

19) Hegel, G. (1970a), 95쪽.

술어가 한 가지 속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런 감각 확신은 “희다”, “짜다”, “입방형이다”라는 개념에 대한 앎을 전제한다. 만일 “희다”를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고 “짜다”를 다른 맛과 구별하지 못하고 “입방형이다”를 다른 모양과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감각 확신은 생기지 않는다.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은 일차 경험을 개념에 의존해 다시 사유할 때 생긴다.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감각 확신의 단계 2는 개념에 대한 앎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개념에 의존한다는 조건은 감각 확신이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라고 해석하는 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현상 의식이 고차 사유라면 일차 경험을 다시 사유할 때 생긴다.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라면 다시 사유하는 일차 경험은 무엇일까? 이 일차 경험의 유력한 후보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이다. 그렇다면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 2가 개념에 기초해 단계 1을 다시 사유한다는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과연 감각 확신의 단계 2와 단계 1의 관계는 이 조건을 만족할까?

“지금 이 낮은 까닭은 내가 낮을 보기 때문이다.”²⁰⁾

헤겔은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 대상과 나의 관계와 감각 확신의 단계 2에서 대상과 나의 관계를 비교해 반전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만 단계 2에서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내가 중요한 것이 된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 대상은 “이것” 또는 “그것”이라는 개별적인 것이지만 단계 2에서 대상은 “지금”과 “여기”로 풀이되는 “이것”이라는 일반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20) Hegel, G. (1970a), 86쪽.

“지금”과 “여기”와 둘의 결합인 “이것”이 모든 순간과 장소와 대상에 적용되는 까닭은 적용하는 주체가 언제나 나이기 때문이다. 헤겔은 내가 중요한 것이 되는 감각 확신의 단계 2에서 일반적 대상을 “나의 대상”이라 부른다. 이전 밤도 낮도 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다. “대상은 내가 알기 때문에 있다.”²¹⁾ 그러므로 지금이 낮인 까닭은 내가 낮을 보기 때문이고 여기가 집인 까닭은 내가 집을 보기 때문이다.

헤겔은 감각 확신의 단계 2에서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보고 아는 것은 아무 개념 없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다.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개념에 의존해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내가 보고 아는 것도 개념에 기초한다. 지금이 낮인 까닭은 내가 낮의 개념에 기초해 낮을 보기 때문이고 여기가 집인 까닭은 내가 집의 개념에 기초해 집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대상을 아는 까닭은 내가 대상의 개념에 기초해 대상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각 확신의 단계 2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 대상, “그것은 있다”에서 “그것” 또는 “이것이 있다”에서 “이것”을 “낮”, “집”, “희다” 등의 개념에 기초해 보고 알 때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개념에 기초해 다시 보고 알 때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생긴다는 것은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고차 사유로서 다시 사유하는 대상이 감각 확신의 단계 1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현대 심리 철학에 비추어 볼 때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라고 볼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현대 심리 철학에서 현상 의식이 고차 사유라면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다시 사유하기 전에는 그 대상이 의식되지 않는다. 4절에서 보겠지만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에서 현상 의식이 다시 사유하는 대상은 비의식 경험이다. 그러나 감각 확신의 단계 1은 “있다”는 매우 빈곤한

21) Hegel, G. (1970a), 86쪽.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의식 경험에 속한다. 감각 확신의 단계 1도 단계 2와 마찬가지로 “있다”는 개념에 대한 앎에 기초한다. “있다”를 “없다”와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일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다시 사유해 현상 의식이 생긴다고 보면 개념에 대한 앎에 기초해 의식되는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역시 개념에 기초해 의식되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다시 사유해 현상 의식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 관계는 현상 의식이 생길 때 내가 다시 사유하는 대상이 비의식 경험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모순된다. 따라서 설사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다시 사유하는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이 관계에서는 현상 의식이 생길 수 없다. 헤겔의 감각 확신이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라면 내가 다시 사유하는 일차 경험은 감각 확신의 단계 1일 수 없고 비의식 경험의 영역에 있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4. 감각 확신의 단계 0과 비의식 경험

감각 확신이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라면 고차 사유의 대상이 되는 일차 비의식 경험의 여지가 감각 확신의 구조 중 어디엔가 있어야 한다. 과연 있을까? 비의식 경험의 문제는 현대 심리 철학에서 의식에 대한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하냐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이 비의식 경험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일차 이론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비의식 경험은 현상 의식이 없는 경험, 주관 느낌이 없는 경험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취를 하고 이를 드릴로 갈면 얼굴 근육이 경직되거나 “끄응!”하고 신음하지만 아프지는 않다고 보고한다. 얼굴 근육이 경직되거나 “끄응!” 하고 신음하는 것은 현대 생리학에서 고통 반응이지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비의식 고통 반응

또는 비의식 고통 경험이라고 한다.²²⁾ 비의식 경험은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휴대폰 통화하기는 의식 경험이지만 자동차 운전하기는 비의식 경험이다.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 듣기는 의식 경험이지만 걷기는 비의식 경험이다.²³⁾

의식에 대한 일차 이론은 비의식 경험을 설명하기 어렵다. 타이에 따르면 생니를 드릴로 갈 때 아프다는 현상 의식이 생기는 것은 곧 우리가 드릴이 잇속의 신경 세포를 손상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아프다는 현상 의식이 생기는 데 신경 세포 손상 경험에 더해야 하는 것은 없다. 신경 세포 손상 경험이 곧 아프다는 현상 의식을 동반한다. “어떻게 [경험이나 느낌]이 [의식되지] 않을 수 있을까?”²⁴⁾ 타이는 경험이 현상 의식을 동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상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비의식 경험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경 세포를 손상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아프다는 현상 의식을 동반하지 않고 얼굴이 경직되거나 “끄응!” 하고 신음하는 비의식 고통 경험은 있다. 일상 생활에도 휴대폰 통화하면서 자동차 운전하기, 음악 들으면서 설거지하기, 책 보면서 볼펜 돌리기, 애인 생각하면서 수영하기 등 비의식 경험은 많이 있다.

커루터스에 따르면 아프다는 현상 의식을 가지는 것은 드릴이 잇속의 신경 세포를 손상하는 비의식 경험에 “즐거움”이 아니라 “아픔”의 개념에 대한 앎을 더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길에 유모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앗!” 하고 놀라면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정신 또는 의식은 운전하는 데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데로 소풍가 있다. 우리는 휴대폰 통화를 하는 동안

22) 다마지오 (2007), 113~116쪽. 르두 (2006), 21쪽.

23) 걷기와 음악 듣기가 비의식 경험과 의식 경험이 아니라 의식의 정도만 다른 희미한 의식 경험과 뚜렷한 의식 경험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의식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인지 심리학자 바즈의 견해에 따른다. Baars, B. (1988), 72~88쪽.

24) Tye, M. (1997), 290쪽.

에도 도로 상황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도로 상황을 보는 우리의 경험은 비의식 경험이다. 길에 유모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앗!” 하고 놀라는 현상 의식은 우리의 정신 또는 의식이 휴대폰 통화에서 도로 상황을 보는 데로 급히 되돌아와 도로 상황을 보는 비의식 경험을 “길”, “유모차” 등의 개념에 의존해 다시 생각할 때 생긴다. 커투터스에 따르면 현상 의식은 일차의 비의식 경험을 이차 또는 고차로 사유할 때 생긴다. 의식에 대한 고차 이론은 비의식 경험을 잘 설명한다.

현상 의식을 고차 사유로 보면 고차 사유의 대상에는 비의식 경험이 있어야 한다. 헤겔의 감각 확신도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라면 감각 확신에 비의식 경험의 여지가 있고 이 비의식 경험을 다시 사유하는 감각 확신의 단계도 있어야 한다. 감각 확신의 단계 2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다시 사유해 “있다”라는 빈곤한 표현을 “밤이다”, “집이다”, “희다”, “짜다”, “입방형이다” 등 풍부한 표현으로 바꾸지만 단계 1도 “없다”와 “있다”를 구별할 정도만큼 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헤겔의 감각 확신에 비의식 경험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까? 나는 “그것은 있다”라고 매우 빈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이 지닌 “매우 풍부하게 보이는 “구체 내용”이 비의식 경험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한다.

감각 확신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헤겔은 이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 확신의 단계 1이 “그것은 있다”고만 말할 수 있는 직접적 앞이라면 “그것은 있다”고 말하기 전에 있는 것은 매우 풍부하게 보이는 감각 확신의 구체 내용이다. 헤겔은 감각 확신이 “그것은 있다”고 표현되기 전에 풍부한 내용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감각 확신의 구체 내용은 바로 매우 풍부한 인식, 실로 무한히 풍부한 인식처럼 보인다.”²⁵⁾

25) Hegel, G. (1970a), 82쪽.

“그것은 있다”고만 말할 수 있는 감각 확신의 단계 1 전에 무엇인가 있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무한히 풍부한” 것처럼 보이는 “구체 내용”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헤겔이 “언어로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진정한 감각 확신은 “그것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지만 매우 풍부하게 보이는 구체 내용에 대한 경험이다. 나는 매우 풍부하게 보이는 구체 내용에 대한 경험을 감각 확신의 단계 1보다 먼저 있다는 뜻에서 감각 확신의 단계 0이라 부른다. 감각 확신의 단계 0의 이 풍부한 구체 내용은 “그것은 있다”는 매우 빈곤한 말에 포착되지 않고 물고기가 성긴 그물에서 도망치듯이 언어의 그물에서 빠져나간다.

헤겔의 철학에 비의식 또는 무의식(unconscious) 경험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느냐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주제다. 밀스(J. Mills)에 따르면 헤겔은 무의식 이론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무의식을 인류학이나 심리학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 주제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밀스는 헤겔이 『엔치클로페디』(1830) 3권에서 말한 “밤 같은 심연(nächtlicher Schacht)”²⁶⁾ 개념이 바로 무의식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 밤 같은 심연으로서 지성은 무한히 많은 상(Bild)과 표상의 세계를 의식하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다.”²⁷⁾

헤겔은 “심연”이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지만 “의식하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의식의 전단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26) 밀스는 영어 “심연(abysse)”의 독일어 원어를 페트리(M. Petry)의 주석서에 따라 “Ungrund”로 제시하지만 나는 Hegel, G. (1970c)에 따라 “Schacht”라 쓰고 심연이라 번역한다. “Ungrund”는 “땅(Grund)”의 “밑(Unten)”이라는 뜻을 가지는 조어이고 “Schacht”는 “갱도”, “산골짜기”, “협곡”, “굴”이라는 뜻을 가진다. Mills, J. (1996), 59쪽.

27) Hegel, G. (1970c), 260쪽.

다. 밀스는 의식되는 상과 표상의 세계에 앞서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헤겔의 『엔치클로페디』와 『정신 현상학』에서 똑같이 나오는 의식의 첫 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헤겔은 『정신 현상학』에서 우선 의식을 세계의 존재가 주관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엔치클로페디』 현상학에서도 그는 같은 것을 말한다. ‘처음에 의식은 직접적이고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의식의 관계는 의식이 대상에 대해 가지는 단순하고 매개되지 않은 [감각] 확신이다.’”²⁸⁾

그러나 밀스는 『엔치클로페디』와 『정신 현상학』에 똑같이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매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감각 확신이 왜 비의식 또는 무의식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나는 『엔치클로페디』에서 의식의 전단계에 속하고 의식되지 않으며 무한히 많은 상과 표상이 『정신 현상학』에서 감각 확신의 무한히 풍부해 보이는 구체 내용과 같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감각 확신의 이런 상과 표상 또는 구체 내용을 무의식과 연결하는 지점이 밀스보다 이병창의 다음 설명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순간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당연히 언어조차 상실됩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겠쎄(Aufzeigen). 나는 붉은 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긍정하는 듯이 ‘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을 옮기면서 ‘음, 음, 음’ 이렇게 하겠쎄.”²⁹⁾

이병창은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서 감각 확신의 풍부하고 생생한 내용이 바로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으므로 “순간적인 감각”이고 언어로

28) Mills, J. (1996), 61쪽.

29) 이병창 (2012), 42쪽.

표현할 수 없으며 “음” 하고 음미할 수만 있다고 해석한다. 만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보면 “순간적인 감각”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의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이 개념에 의존하는 고차 사유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적인 감각”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비의식의 영역에 속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음” 하고 음미하는 순간 비의식의 영역에 있는 풍부하고 생생한 내용은 의식의 영역에 들어온다. 마치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유모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앗!” 하고 놀라는 것과 같다. “앗!” 하고 놀라거나 “음” 하고 음미하는 것이 의식의 첫 발화라면 “앗!” 또는 “음”은 비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 사이의 경계선에서 나오는 감탄사라고 볼 수 있다.

헤겔은 『정신 현상학』에서 비의식 경험에 관해 직접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병창은 순간적인 감각으로서 감각 확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음” 하고 음미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함으로써 헤겔이 말하지 않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지점은 감각 확신의 풍부하고 생생한 내용에 대한 비의식 경험이 “음” 하고 음미하는 의식 경험으로 전환하는 접점이다. 우리가 감각 확신을 “음” 하고 음미할 때 비의식 경험의 영역에 있는 풍부한 내용은 의식 경험의 영역 속으로 기지개를 켜다. 감각 확신은 “음” 하고 음미할 때 비의식 경험에서 의식 경험으로 전환한다.

5. 맺음말

헤겔의 감각 확신은 적어도 세 단계를 거치며 반전하는 의미를 지닌다. 감각 확신의 단계 0은 매우 풍부한 내용을 지니지만 언어에 전혀 포착되지 않는 비의식 경험의 영역 속에 있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은 “그것은 있다”, “이것이 있다”는 언어로 표현된다. 감각 확신의 단계 2는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 “이것은 희다”, “이것은 짜다”, “이것은 입방형이다”는 언어로 표현된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 우리는 “있다”는 개념에 기초해 감각 확신의 단계 0을 다시 사유함으로써 “그것은 있다”는 말로 표현한다. 이 때 감각 확신의 단계 1 또는 단계 1의 주관으로서 나는 일차 비의식 경험인 감각 확신의 단계 0을 “있다”는 개념에 기초해 다시 사유함으로써 의식 경험인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얻는 것이므로 감각 확신의 단계 0과 단계 1의 관계는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 생기는 관계와 일치한다. 감각 확신의 단계 1은 현상 의식이다.

그렇다면 감각 확신의 단계 1과 단계 2의 관계는 무엇일까? 앞에서 나는 내가 “밤”, “집”, “희다”, “짜다”, “입방형이다” 등 여러 개념에 기초해 “그것은 있다” 또는 “이것이 있다”라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을 다시 사유함으로써 “지금은 밤이다”, “여기는 집이다”, “이것은 희다”, “이것은 짜다”, “이것은 입방형이다” 등 감각 확신의 단계 2를 얻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이 이미 의식의 영역 속에 있으므로 감각 확신의 단계 2 또는 단계 2의 주관으로서 내가 단계 1을 다시 사유한다고 해서 현상 의식이 생길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감각 확신의 단계 2 또는 단계 2의 주관으로서 내가 다시 사유하는 것은 단계 1이 아니라 단계 0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다시 사유하는 대상은 “그것은 있다”고 표현되는 감각 확신의 단계 1이나 단계 1에서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다. 그렇다면 감각 확신의 단계 2와 단계 1이 다시 사유하는 대상은 똑같은 감각 확신의 단계 0이다. 감각 확신의 단계 2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있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밤이다”, “집이다”, “희다”, “짜다”, “입방형이다”는 대답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이 뭘까?”는 내가 감각 확신의 단계 1에서도 단계 0에 대해 생각해 “있다”는 대답을 얻는다. 따라서 감각 확신의 단계 2도 단계 1과

마찬가지로 현상 의식이다.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가진 일차 비의식 경험, 곧 감각 확신의 단계 0을 다시 사유할 때 처음에는 “있다”는 개념에만 기초해 빈곤한 감각 확신의 단계 1이 생기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는 동시이거나 아주 짧은 시간차를 두고 다양한 개념에 기초해 다양한 감각 확신의 단계 2가 생길 수 있다. 감각 확신의 단계 1과 단계 2의 관계는 얼핏 보면 단계 2가 단계 1을 다시 사유하는 것 같지만 면밀하게 보면 단계 2도 단계 1과 마찬가지로 단계 0을 다시 사유하는 병렬 관계라 할 수 있다. 헤겔의 『정신 현상학』에서 감각 확신은 감각 확신의 단계 1과 단계 2가 단계 0을 다시 사유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고차 사유로서 현상 의식이다. 따라서 헤겔의 의식 이론은 현대 심리 철학의 눈으로 보면 고차 사유 이론의 한 종류다.

참고문헌

- 다마지오, 안토니오 (2007), 『스피노자의 뇌: 기쁨, 슬픔, 느낌의 뇌 과학』, 임지원 옮김, 사이언스북스.
- 르두, 조지프 (2006), 『느끼는 뇌』, 최준식 옮김, 학지사.
- 윤보석 (2007), 「지향성과 의식의 분리에 관하여」, 『철학적 분석』 15, 37~58.
- 이병창 (2012), 『불행한 의식을 넘어』, 먼빛으로.
- Armstrong, D. (1981), *The Nature of Mind and Other Essays*, Ithaca, NY: Cornell.
- Baars, B. (1988), *A Cognitive Theory of 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k, N. (1998), “On a Confusion about a Function of Consciousness.” in N. Block, O. Flanagan and G. Guzeldere. *The Nature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Debates*, MIT Press. 375~415.
- Carruthers, P. (2000), *Phenomenal Consciousness: A Naturalis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lmers, D. (1995),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2, 200~219.
- Hegel, G. (1970a),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Bd. 3, *Phänomenologie des Geist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Hegel, G. (1970b),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Bd. 8,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Hegel, G. (1970c),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Bd. 9,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Ikäheimo, H. (Forthcoming), “Animal Consciousness in Hegel, G.’s

Philosophy of Subjective Spirit.”

Lycan, W. (1996),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Cambridge, MA: MIT Press.

Mills, J. (1996), “Hegel on the Unconscious Abyss: Implications for Psychoanalysis.” *The Owl of Minerva* 28, 59~75.

Nagel, T. (1974), “What Is It Like to Be a Bat?” *The Philosophical Review* 83. 435~450.

Petry, M. ed. (1978), *G. Hegel's Philosophy of Subjective Spirit*, 3 vol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mpany.

Rosenthal, D. (1986), “Two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 329~359.

Tye, M. (1997), “The Problem of Simple Mind: Is There Anything It Is Like To Be A Honey Bee? *Philosophical Studies* 88, 289~317.

Hegel's 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

The Sense-Certainty and the Phenomenal Consciousness

Kim, Seong-Hwan (Daejin Univ.)

I analyse Hegel's theory of consciousness in terms of some theories of it in the contemporary philosophy of mind. I propose a new interpretation of Hegel's concept of the sense-certainty in his *Phenomenology of Spirit* and argue the following statements. First of all, the sense-certainty can be divided into three steps and the step 1 of it has a possibility of being same with the phenomenal consciousness in the contemporary philosophy of mind. Secondly, analysing the step 2 of it, Hegel's theory of consciousness can be interpreted as a kind of 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 Thirdly, the richest and concrete contents of the step 1 of it which are not expressed by language can be called the step 0 of it and seen as the first-order nonconscious experience which is the object of the phenomenal consciousness as higher-order thought. The reason why I analyse Hegel's theory of consciousness in terms of the contemporary philosophy of mind is to give a clear explanation of his difficult philosophy, especially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sense-certainty. And also I think that I can explain a part of the tradition of 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 in history of philosophy by showing that it has a root in Hegel's theory of consciousness.

Key words: Hegel, Consciousness, Sense-Certainty, Phenomenal Consciousness, 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 Unconscious

김성환 e-mail: shkim@daejin.ac.kr

투 고 일	2014년 10월 17일
심 사 일	2015년 02월 02일
게재확정	2015년 02월 15일